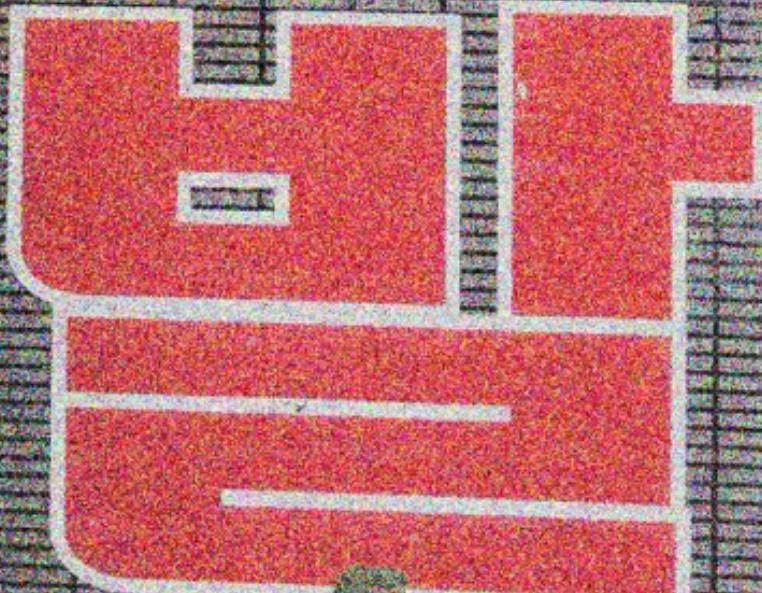


010-8749-4407



당
기
시
오

첫 방문

내게는 별세계

미리가서 허락말고

조심조심 기웃기웃

자전거 타고 출근
뒷모습 두 세번
가끔은 부재증
'우리 마누라'와 점심
얘기가 재미 있어서
두시 넘어 재 오픈

2020						
日	月	火	水	木	金	土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9

2020 SEPTEMBER 庚

日	月	火	水	木	金	土
MON	TUE	WED	THU	FRI	SAT	SUN

1 2

30 헌신의 날(제2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3 14 15 16 1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0 21 22 23 2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M	E	M	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EMO

◆청소용품납품전문

(주)나비솔루션

www.naviclean.co.kr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18길 24, 지하1층 2호(화곡동, 강서뉴타운)

◆화장지 ◆대리석 관리용품 ◆영농용품 ◆

할아버지의 '우리 마누라'
는 아프시고
할아버지는 가끔씩
다소
쓸쓸해 보인다

겨울에는 연탄난로
해마다 연탄값은 오르지만
고구마도 구울 수 있고
따듯해 보이는
11월 이면 등장
혹은
10월 말
추워지면

£ 5000



샴푸는 하지 않고
한사람당 5000원
할아버지가 힘드시니
소문내지 말것

이사갔지만 다시오는 할아버지 손님

곱게 차려입고 지하철 타고

이사갔지만 다시오는 할아버지 손님

차 끌고 의정부에서

고구마 한 가득

염색은 언제

기침 콜록콜록

목소리 잠긴

손님 할아버지

이발소 할아버지 보다 어리지만

할아버지 건강 걱정

깐깐해 보이는 중년 아저씨 손님

셔츠 벗고

반팔 내의 차림

준비

수다

전라도 제비 같은 손님 할아버지

정치 얘기 한번

가끔 물건 빌리는

이웃집 할머니

주민등록증 재발급

마누라 것은 괜찮은데

내 것은 뿌옇게 바래서

바꾸어야 해

이른 시각부터 이발소에 앉아있는 이유



그래도
할아버지 이발소에는
식구 같은 할아버지 ①, ②
그리고
TV가
트로트가
무화과나무가…

조금 뒤 등장하는
①번 할아버지
빗자루를 손에 쥐고
조심조심
날리지 않게
쓸어서
쓰레받기로
다시 쓰레기통으로
은색 발누름 쓰레기통
가끔은 ②번 할아버지도
그리고
트로트

외국에서 일한 적 있는

①번 할아버지는

리모컨을

빗자루를

쓰레받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식구

머리카락 쓸기

점심도 같이

아니면 간식

술 한잔

계곡으로 여름 휴가도

가끔 마주치는
검은 머리
②번 할아버지
무뚝뚝
하지만 안무뚝뚝
어떤날은 배달
어떤날은 먹을 것 챙겨 들고
어떤날은 술
막걸리 보다는 소주



무화과나무 그늘아래

의자 여러개

쉬어 가는곳

햇빛을 가려주는

벌레가 생기지도 않고

무성하게 푸르고

오래된

이발소 나이 만큼

무화과나무

동네 주민

할아버지

‘우리 마누라’ 할머니

①번 할아버지

새벽에 운동가다가 인사

이발소 지나가다가 인사

선거 하는 날

휠체어 탄 ‘우리 마누라’ 할머니

할아버지

꾸벅 인사

만두집 앞 신호등

①번 할아버지 인사

sky 피자집 화단 모퉁이

라디오 듣는

흰머리 ①번 할아버지 인사

우리는 오다가다 만나는

동네 주민

사이



TV채널은

트로트

가끔

동물의 왕국

사막, 선인장이 등장했다가

다시

트로트

어쩌다

뉴스

긴긴 보험 광고

별걸 다 주는

상조 광고

신문은 돌려읽기

스포츠 돌려읽기

햇빛도 가리고

주현미도 있고
못 보던 머리스타일
'여봉'
송가인은
귀인
어려울 땐 나타난다지
트로트
트로트

칠갑산은 잘못된 선곡
홍얼홍얼
훌쩍훌쩍
몸 불편한 손님 할아버지
훌쩍훌쩍
눈가가 흥건

①번 할아버지는

‘중학생이냐?’

흐… 흐

‘방학 했냐?’

흐… 흐

나는

학생이

어린 소년이

되고

‘아, 하하’

얼버무리기



머리스타일은

‘이충머리’

빗과 빗을 꽂아
머리카락을 고정 시키고
면도기로 스윽스윽
가위로 다듬기
가운을 곱게 접어 툭툭
잘린 머리카락들이
후두둑
할아버지는 기술자

크림을 바르고
면도칼로 스으윽
분홍색 체크 수건으로 닦아 주기



할아버지 운동화

흰색 가운

이제는 필수

마스크

검은색 나이키 에어 포스 원

새로바뀐 신발

에어조던 흰색

여름이라 시원한

통 칠부바지

새것 갈이 깨끗한

오래된

모자도 있고
흰색 가운 여러개
알 수 없는 수석
주석 컵은 CTS방송국 기념
금색 조각상
면도칼
면도칼

..

배터리
면도기
면도기

솜
솜
머리카락
머리카락
수건
수건
크림
크림

우리 이발소 그림 선물 이야기

(송유림과 함께)

홍성훈

1. 처음

(처음이 언제였죠?)

여름인가. 다른 건 모르겠고 반팔 입고 갔었던 것만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봄이나 여름 초입이라고 해도 되게 더운 날이 있잖아요.

나는 복장이 특히 기억이 나는데 내가 반팔 입고 딱 가서 가운을 입혀 줄 때 그 더운 느낌 같은 게 생생하게 복원이 되더라고. 그게 왜냐면 할아버지가 이제 머리 잘라 줄 때 여름 같은 때는 약간 땀이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약간 신경 쓰이는 것도 있고 가운 입으면 덥기도 하고. 봄 가을에는 그런 느낌이 별로 없으니까.

선풍기도 돌아가고 있었고.

하여튼 반팔 입고 갔던 기억이 정확하게 있어. 첫날.

(남향인가?)

응. 그렇죠.

밖에 무화과 나무 심은 이유도 해가 바로 들어서 덥고 그래서 심으셨대요. 거기 신문지 같은 거 매달려 있는데 그것도 해가 바로 들어서 그런 거고.

그 무화과 나무는 이발소 시작하면서 할아버지가 심으신 게 그만큼 큰 거래요. 뭔가 그때 즈음 우리가 동네 여기저기 왔다갔다하면서 우리 이발소에 대한 인상도 강하게 남은 게 그 나무 영향도 꽤 있을 것 같아. 운치가 있잖아요.

[] 서울에서 나고 자랐지만 노량진2동에 이사 오기 전까지 노량진으로 알려진 동네에서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노량진이라. 여기는 또 어디인가.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딱 그 정도의 이미지로 수산시장과 고시촌을 떠올릴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정작 당장 살 집을 찾아 지금의 6구역에 발을 들여놓고 보니 노량이라는 말의 한량한 어감과 의미를 짊어삼킨 두 커다란 산업의 바쁜 이미지를 가까운 거리에서 찾을 수는 없었다. 이미지와 다른 현실의 구체적인 맥락이랄까. 같지만 다르다. 재정비가 시급한 동네에 임박한 네모난 재개발의 속사정이 어떠하든 뭐 하나 바쁠 것 없이 꽤나 노량한 곳에 엉겁결에 찍은 저렴한 좌표에서 만끽하는 남쪽 햇살이 일단 마음에 들었다. 궁지에 몰린 사람의 묘한 창의력은 어떻게든 잘 살아갈 방법을 찾아내는 것 같다. []

(첫날.)

(내가 먼저 가서 잘라보고. 신나서 데리고 간 거라는 거죠?)

이게 투블럭인데 할아버지가 한칼에 정리해서 이층머리라고 해줬다고 이제 우리는 이층머리만 하면 된다고. 이제 거기 가서 이층머리만 하면 다 정리됐어 그러면서.

그동안 뭔가 다른 미용실에서 불편하고 갈 때마다 스트레스 받았었잖아. 거기 너무 산만하고 시끄럽게 음악 틀어놓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단칼에 할아버지가 센스있게 아 이거 이층머리야 그랬다고 신나서 얘기해서 더 웃은 것도 있지.

(여기야! 그런 거.)

(그러면 그 골목길 따라 가는 동안 기분이 어땠어요?)

계속 엄청 웃겼지.

거길 진짜 가서 이렇게 자르고 이층머리 하고 오는 거야? 내가 진짜 가도 돼? 이런 거.

[] 매달 반복해야 하는 헤어컷의 의례적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갓 전입신고를 마친 주민에게 펼쳐진 넓은 도시의 시골스런 풍경이 재미있어 골목 구석구석을 구불구불 돌아다니는 게 취미로 몸에 배는 동안 머리카락은 늘 그러하듯 직선으로 자랐다. 새로운 취미나 머리카락이나 제자리를 찾기에는 당연히 이를 느낌이 없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전에 살던 동네나 그 전에 살던 동네에서는 마음 편하게 다니는 미용실이 있었고 어쩌다 보니 헤어스타일의 선택권은 내가 아니라 그 공간의 주인들에게 넘어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 갑작적인 의례의 달인들이 보통 이상으로 큰 머리에 어렵지 않게 고정해 놓은 단순한 스타일의 마지막 형태를 사람들은 투블럭이라고 불렀다. 불편한 게 없으니 그려려니 하고 잊고 있었다. 하지만 편하고 단순한 상황이 초기화되면 잊고 있던 불편함과 복잡함이 갑작스레 솟아오른다. 아뿔사. 동네는 익숙해지는데 머리카락은 낯설어지는 아이러니는 은근한 스트레스를 뒤통수 한구석에 차곡차곡 압축했다. 자란 머리카락은 잘라야 했고 압축은 뜨거워지기 전에 풀어야 했다. 몇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다. 재개발이 임박한 동네의 옆 동네에서 완료된 재개발의 세련됨을 가장한 헤어숍의 세련됨은 과장되고 산만했다. 덜 익은 기술이 잘못인지 과장된 가격이 잘못인지 산만한 손놀림이 잘못인지 하여간 곰곰이 따져볼 여유를 갖든 말든 머리카락은 늘 그러하듯 직선으로 계속 자랐다. 오가는 길에 마주치던 우리이발의 싱그러운 운치가 계속 뒤통수를 자극했지만 선뜻 반응할 수 없었다. 나무 뒤의 5000원이 전하는 메세지의 의미는 결코 해석이 쉽지 않았다. 어서 오(지마)세요? 그렇지만 궁지에 몰린 사람의 묘한 창의력은 어떻게든 잘 살아갈 방법을 찾아내는 것 같다. 근거 없는 불안을 심호흡으로 달래고 일단 문을 열고 들어서니 모든 것이 한칼에 정리됐다. 응 어서 와. 응 이건 이층머리야. 둘이 합쳐 만원. 이제부터 우리 머리는 이발한 이층머리다. []

2. 시간

(달력이 중요해요?)

그때 뭐 계곡 놀러가자고 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거 손님들 등장하잖아요. 그런 데서도 오래된 관계 같은 거를 발견할 수 있고.

달력이 계절이나 시간의 흐름을 보여 주니까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거나 할아버지가 옛날을 회상하면서 하는 얘기 같은 거랑 관련이 있죠.

할아버지가 막 말씀이 많으신 편은 아니니까 딴 손님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지는 않고. 그냥 할머니 이야기할 때 뭔가 우리가 부부니까 갈 때마다 할머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난 들었거든요. 특히 날 볼 때. 할머니랑 할아버지도 짊었을 때가 있었을 거잖아.

(나한테 얘기할 때랑은 또 다르신가?)

다르겠죠.

한번은 아저씨 할아버지 손님들 대거로 와서 심하게 떠들었던 날이 있거든요. 그때 할아버지가 나머리 자르면서 남자들이 다 저렇다 아휴 저 남자들 그러면서 약간 징긋징긋하셨다고.

그 할아버지 무리가 다 가고 나서 그래도 남편이랑 잘 지내고 잔소리 같은 거 너무 하지 말고 남자들이 밖에서 돈 쓰고 싶을 때 그런 거 쓰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되고 이런 얘기도하면서 자기 마누라랑 얹힌 이야기도 하셨어요.

좀 더 건강했을 때는 가끔씩 마누라랑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런 게 낙이었는데 자기는 지금 제일 속상한 게 맛있는 거 같이 못 먹는 거라고. 고기 국물 같은 것도 사서 몸보신 시켜줘야겠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셨고.

[] 모든 문은 열고 들어서는 순간 조금 전의 상황과 다른 세계를 초대한다. 들어가도 돼요?
할아버지도 약간 당황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눈동자에서 읽을 수 있는 어렵지 않은 메세지. 엔 뭐지? 덕분에 열린 것도 닫힌 것도 아닌 문에 가까스로 연결된 몸의 카락은 들어선 것도 나선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에 놓인다. 저 이발을... 할 수 있을까요? 뻔한 대사에 별 반응이 없는 눈동자에서 읽을 수 있는 어렵지 않은 메세지. 얘 진짜 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륜이 담겨 있는 다행스러운 승인은 말보다 진한 온기로 시간을 채운다. 응 어서와. 모든 초대는 다짜고짜 일방적일 수 없고 그래서 던지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모두에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성사된 거래 바로 다음에 예정된 테마는 어쩌다 보니 일사천리이다. 의자, 수건, 가운의 익숙한 조합이 낯선 초대를 날 선 빛으로 꽂아 제 손아귀 안으로 묶으니 사방의 떨림이 제 진동수를 찾는다. 가위. 가위. 가위. 새로 이사 왔어? 가위. 가위. 가위. 가위. 가위. 네. 저 위에. 가위. 얼마 전에. 가위. 우리 집사람이 아파. 가위. 예? 아. 가위. 아. 가위. 가위. 가위. 가위. 가위. 가위. 가위. 가위. 우리 집사람이 아파. 가위. 꾸벅. 가위. 꾸벅. 가위. 가위.

가위. 가위. 가위. 가위. 가위 하고도 한 참 더 가위. 가위. 다 됐다. 이층머리. 음. 톡. 톡. 톡. 음. 그리고 보니. 음. 오늘 내가 연 문이 사실상 어제 네가 연 문이었던 것은 아닐까. []

(달력이 작업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달력에 네모 칸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나한테 의미가 되게 큰 게 내가 점으로 자수하면서 할아버지한테 선물할 때 점과 점이 쌓여서 시간이 이만큼 쌓이는 거라는 이야기도 할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달력에 네모 칸도 하나의 점이고 하루의 단위가 쌓이고 쌓여서 시간이 축적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의미가 크다고.

카드 형식으로 처음에 생각한 게 달력 네모 보고 한 것도 있고 이발소 창문에 칸칸 돼있는 그런 느낌이 좋아서 시트지 자체에 그 네모를 보면서 생각한 것도 있거든요.

이발소의 손님들도 구성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구성원이 각각의 네모가 돼서 큰 창도 채울 수 있는 것처럼 시간도 그렇게 네모네모가 쌓이면 엄청 큰 창이 될 수 있잖아요. 점도 쌓이고 쌓이는 거고. 자수 점 하나하나가 인연이 만나 엮이고 엮여서 이렇게 큰 그림이 되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달력 자체의 기능에 대한 생각도 은연중에 들어갔겠죠?)

아마도 그렇겠죠.

왜냐면 계절 바뀔 때마다 등장하는 그런 것들도 달력에 내가 넣어 놨는데 그때 왜 처음이 언제였는지 물어봤을 때도 선풍기 얘기한 게 계절이 변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추워지면 연탄난로도 중간에 딱 등장하고 무화과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되게 겨울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름에 가면 또 되게 다르잖아. 풍경이. 무화과 나뭇잎도 되게 무성하고.

[] 근대적 세계관의 기계적 물신인 시계가 발명된 이후 자연스럽게 흐르던 시간의 무한성은 사람들에게 분할 가능한 것이자 분할된 것들 사이를 오가는 통로 같은 것으로 경험되기 시작했다. 가령 어느 평범한 일꾼의 기계적 일상은 집을 나서 일터로 향한 다음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한 덩어리의 장소적 리듬으로 재편된다. 그래서인지 집과 일터 사이의 간격이 벌어질수록 집에 있는 시간과 집밖에서 일하는 시간의 차이는 마치 본성상 원래 그러했던 것처럼 멀게만 느껴진다. 분할된 두 덩어리의 시간에 엉겨붙는 나름의 질서가 일상의 리듬 속에서 반복을 거듭할수록 오묘하기만 했던 차이의 기시감은 점점 확실한 사실로 고정된다. 이제 집과 일터는 사실상 다른 시공간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해지는 문제는 분할된 시간 자체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그것들 사이를 어떻게 오가는지 혹은 그 사이에 어떻게 머물러 있는지에 관한 것이 된다. 그래서인지 질서와 질서 사이에 벌어진 날카로운 틈새는 꽤나 자주 성실한 사람들의 일상을 고장나게 한다. 워낙 없던 어릴 때부터 굶지 않기 위해 이발 기술을 일부러 일로 배운 할아버지는 집사람이 아픈 이후에야 문득 이발소를 지금의 집 근처로 옮길 생각을 하셨다고 한다. []

3. 손님

(손님이랑 5000원이 엇인다고요?)

5000원이라서 손님이 더 많은 것도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비교적 최근까지 4000원인가 받았었데요. 몇 년 전까지. 그런데 동네 시세라는 게 있는데 다른 이발소 사람들이 뭐라고 할 정도로 너무 저렴해서 5000원으로 올렸다고.

5000원이라는 것 자체도 상징성이 크다고 난 생각해요.

우리 같이 둘이 가면 10000원 짜리 한 장이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깔끔한 가격이야.

(5000원.)

(손님.)

(기억에 남는 손님들도 있어요?)

손님. 기억나는 거 많지.

내가 여자니까. 내가 거기 있을 때 지금은 내가 당당해지긴 했는데 첫날 같은 때는 어색함이 컼고 그 다음부터는 매달 갈 때마다 내가 보지 않은 새로운 할아버지 손님이 등장했을 때 약간 나를 경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내가 거기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할아버지 손님들이 다 와서 약간 이렇게 앉을까 말까 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힐끔힐끔 쳐다봐요.

1번 할아버지만 하더라도 한 세네 번 갔을 때 “방학했냐?” 이렇게 물어본 게 겨울이었으니까. 그런 다음에 대여섯 번 갔을 때도 나한테 계속 “중학생이냐?” 그랬다고. 그리고 얼마 전에 자르고 있을 때도 눈이 안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때 또 날 처음 본 것처럼 “나는 할아버지 손자가 왔나 했다.” 그랬거든. “중학생이냐?” 연장선에서.

흠흠 이렇게 헛기침하고 나를 계속 살짝살짝 쳐다보다가 갑자기 “중학생이냐?” 그래서 임팩트가 되게 쌹고 갑자기 둘이 꽤 오래 앉아 있다가 침묵이었는데 갑자기 “방학했냐?” 그래서 또 나 혼자 머쓱해가지고 아 네 이러고 말았거든.

[] 아내가 할아버지들의 사이 공간에 무리 없이 자리잡을 수 있었던 여러 이유 중 중요한 두 가지는 아마 그 사람 특유의 많이 어려 보이는 얼굴과 이미 짧았던 헤어스타일일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발소에 갈 때마다 만나는 1번 할아버지가 일상적인 침묵을 깨고 느닷없이 던진 불연속의 세 물음을 한 줄로 엮으면 같은 사이 공간에 들어선 우리가 과연 동시에 같은 세계를 살고 있기는 한 것인지 상당히 궁금하지 아니할 수 없다. “방학했냐?” - “중학생이냐?” - “나는 할아버지 손자가 왔나 했다.” []

(손님들 구경하는 재미가 있구나.)

(또?)

두 번째가 갔을 때 손님이 꽤 많이 왔었어요. 그때 좀 깔끔하게 차려입은 할아버지 한 명이 있었다고. 그 할아버지도 이사 갔는데 일부러 왔다고 하면서 거기서 또 자기 또래 친구 할아버지랑 만나서 나중에 우리랑 그때 또 마주쳤어. 그래서 내가 혹시 저 할아버지가 우리 집주인 아니었을까. 이랬잖아요. 그 할아버지 되게 깔끔한 느낌이었거든요. 일부러 뭔가 외출하는 복장을 갖춰 입고 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그 할아버지를 1번 할아버지랑 정치 얘기를 했었나 그래서 갑자기 목소리 커져 가지고 그날 이발소 떠나가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게 행색이 깔끔하거나 그런 할아버지들은 기억에 딱 남는데 그 할아버지를 데리고 온 친구 같은 할아버지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나 지금. 그 할아버지도 어쨌든 거기 단골로 와서 기다리다 머리 자르고 이랬을 텐데 말야. 다른 할아버지들이랑 대체로 비슷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고구마 할아버지는 누구였죠?)

고구마 갖다 준 할아버지는 나중에 나 혼자 찾아갔을 때 할아버지가 무슨 의정부에 형사라고 경찰서 근무한다는 것 같던데 그 할아버지는 조금 할아버지가 아니고 약간 아저씨 할아버지였어. 일단 주차를 좀 하고 들어와서 할아버지가 신경을 많이 썼었고 이제 오지 말라고 그만 오라고 몇 번 그렇게 얘기했다고도 했어요. 계속 그렇게 오니까 할아버지 부담스럽다고. 의정부에서부터 온다고. 가뜩이나 손님 많을 때 오고 이러면 부담스러운 거지.

(또?)

중간에 한 두세 번 본 손님인데 인사만 하고 간 근처 사는 할아버지도 한 명 있어.

칠갑산 노래 듣고 울었던 할아버지도 있잖아요.

전라도 아저씨는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완전 제비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곽훈 선생님 닮은 할아버지도 한 명 등장했었는데 딱 오더니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아 마스크. 그리고는 집이 근처인지 금방 또 마스크 쓰고 왔어. 좀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다시 나갔지.

2번 할아버지는 어쩌다 한 번씩 와.

약간 새침때기 같은 공무원 비슷한 아저씨도 한 명 있었는데 내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마침 그때 나 혼자 앉아 있어서 먼저 하시라고 내가 그랬거든. 그랬더니 갑자기 와이셔츠를 벗고 그 비와이씨 하얀 러닝만 입은 다음에 되게 자연스럽게 옷을 깔끔하게 개어 놓고서는 그 다음부터 말 되게 많이 하더라고 그 아저씨.

할아버지보다 더 나이 많이 들어 보이는 정말 목소리가 하~ 하~ 이렇게 아파가지고 정말 그런 하~ 소리 나는 할아버지도 있었거든요. 그 할아버지는 계속 무슨 얘기할 때마다 건강 염려하면서. 이발소 할아버지 건강 염려하면서. 건강 조심하라고 계속 염려하면서. 그때 다른 손님이 할아버지 바지를 보면서 바지 뭐 시원한 거 입으셨네요 그랬더니. 이제 할아버지가 이거 오래된 바지라고 그런데 할아버지가 살이 빠져가지고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안 헐렁했는데 지금 허리가 몇 인치라는 둥 그런 얘기 하니까. 그 목소리 잠긴 할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그렇다는 둥 건강해야 된다고 계속 그런 얘기 계속 했어요.

(다들 할아버지라서 뭐.)

(이발소 할아버지는 그나마 건강하신 편 아닌가?)

아저씨 같은 할아버지가 있고 완전 할아버지가 있는데 한번은 완전 할아버지 측에 드는 할아버지였는데 이렇게 눕혀 주더라고요. 응. 그리고 나서는 면도를 해줬어. 응. 저렇게 해주는구나. 뭔가 특별 서비스 같은 느낌이었어. 왜냐면 그 할아버지도 그렇게 건강하지 않더라고 나갈 때 보니까.

할아버지도 항상 운동화가 나이키에 에어가 크게 달린 거잖아요. 생각해보니까 할아버지 다리가 좀 불편하니까 일부러 그 에어 있는 걸로 자식들이 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나이기보다는 에어. 에어가 항상 인상적이었어.

[] 이발소를 드나드는 손님의 범주는 의외로 다양하게 분화된다. 우선 시간을 기준으로 자주 오는 손님과 그렇지 않은 손님을 나누고 그런 다음 주인과 친한 정도를 기준으로 익숙한 손님과 그렇지 않은 손님을 나누기만 해도 총 네 부류의 범주를 식별해낼 수 있다. 그중에서 특히 방문이 잦고 주인과 친한 정도가 높은 이른바 단골은 언뜻 대립향처럼 보이는 주인과 손님 사이를 자유롭게 가로지르는 독특한 범주이다. 하지만 단골의 지위는 이미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구축하고 성취해야 하는 현재미래진행형의 과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단골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규칙적이어야 하고 무엇보다 다른 단골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단골의 지위는 그곳에서 가장 품위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회적 명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1번 할아버지의 자리는 아무에게나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

4. 식구

(5000에서 5가 빠지면 밖이 안이 되는 거네요?)

(유료가 무료가 되고.)

안에서 보면 밖에 무화과 나무 그늘이 이렇게 비치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지.

처음에 누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1번 할아버지, 2번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셋은 있었어.

1번 할아버지가 더 존재감이 큰 게 거의 출근하듯이 맨날 오고 밥 때 되면 냄비 같은 것도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나 혼자 인터뷰하러 열두 시에 갔을 때도 1 번 할아버지가 거기 이발소에 거울이랑 드라이기랑 화장품이랑 있거든요. 거기서 막 콧노래 부르면서 머리 드라이하고 뭘 막 뿐이라고 그리고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어디 누구 만나려 가냐 이랬거든. 그러더니 다시 집에 가더니 무슨 김치 단지 같은 걸 들고 와서 브루스타를 꺼내서 되게 자연스럽게 후라이팬에 불을 붙이더라고요.

2번 할아버지도 은근히 그렇게 할아버지를 챙기더라니까. 그래서 우리 전에 한번 점심시간 때 즈음 갔다가 다시 나온 적 있잖아요. 그때도 2번 할아버지가 뭔가 먹을 거 짜 들고 할아버지 간식 같은 거 들고 들어갔어. 그래 가지고 나는 할아버지가 식사하신 줄 알고. 여기서 식사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여기서 간식만 먹고 집에 가서는 먹은 티 안 낸다고 그러셨잖아. 집에 가서 마누라랑 식사해야 하는데 이발소에서 뭐 먹고 왔다고 하면 그러니까.

식구라 그랬어. 이발소 할아버지가 나한테 식구란 단어를 써서 설명을 했거든. 내가 점심 때 한번 또 따로 갔을 때 1번 할아버지가 왔다갔다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아 저 분은 그 머리 맨날 쓸어주시고 계속 계신던데. 그러니까. 어 가족이나 마찬가지지 뭐. 이랬어.

(1번 할아버지는 매일 와서 하는 일이 있고 2번 할아버지는 그 정도는 아니고?)

빗자루로 할아버지가 쓸면 쓰레받기로 이렇게 머리카락을 담잖아요. 쓰레기통 위에 대체로 쓰레받기가 올려져 있어. 그리고 쓰레받기 위에 이발소 할아버지가 크림 같은 거 닦고 난 휴지를 거기에 이렇게 떨어트려 놔요. 그러면 1번 할아버지가 비질을 하고 그거를 같이 벼려. 약간 시스템이 돼있어. 둘이 타이밍이 잘 안 맞으면 동선이 꼬일 때도 있을 텐데 대체로 잘 맞지.

할아버지가 걸리적거릴 정도로 막 유난스럽게 비질하는 게 아니고 되게 자연스럽게 티비 보다가 좀 머리카락 모이는 타이밍에 비질을 하신다고. 대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티비 보거나 이러다가 그냥 자기가 어느 순간에 일어나서 비질하고 리모콘 돌리고 그러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

우리가 가는 시간이 일정하지는 않지만 할아버지가 아침부터 나와있지는 않거든요. 아마 1번 할아버지가 11시 즈음 넘어서 오는 것 같아. 그리고 자기 집에 갔다가 또 오고 대중 없는 것 같아.

2번 할아버지는 약간 무뚝뚝한데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 간식 같은 것도 몇 번 사왔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발소 할아버지 뭐 드시라고 사오고 아 난 됐어요 그리고 나가버리지만 1번 할아버지는 약간 떼쟁이 같은 느낌이고.

2번 할아버지가 나한테 직접 말을 건 적은 없어. 약간 그러면 머쓱하게 있다가 나가. 그리고 1번 할아버지도 뭔가 자기랑 안 맞는 손님이 있으면 나가. 자리가 꽉 차서 나갈 때도 있고. 그때 그래서 우리 다 자르고 나오는데 스카이피자 화단 앞에서 라디오 엄청 크게 틀고 거기 앉아 있다가 우리랑 눈 마주치니까 인사했었잖아.

1번 할아버지는 동물의 왕국이나 볼까 이러고 채널 돌린 게 난 되게 기억이 남아. 그리고 그때 무슨 김병만 채널을 또 보고 있었어요. 정글 뭐 그거 나오는 거. 근데 거기에 사막이 나오고 선인장이 나오고 그러니까 갑자기 나한테 말을 걸면서 저 선인장 뭐 뭐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발소 할아버지가 이 사람이 뭐 사우디 어디 외국에서도 근무하고 이래서 잘 안다고 그 얘기 했었는데 웬지 그런 사막에서 진짜로 살아 본 느낌이야. 할아버지가 직접 선인장 얘기하면서 뭐라고 나한테 설명을 했다고. 선인장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사우디 같은 데서 근무하지 않았나 싶은 거지.

5. 동네

(여기도 똑같이 문 바깥 아니에요?)

단순히 밖이 아니고 동네. 무화과 나무를 배경으로 아예 동네 권역이 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야. 아예 이발소 권역을 벗어난 그렇지만 이발소랑 인연이 있어서 마주치는 건데 어쨌든.

할아버지를 이발소에서만 본 게 아니고 나는 마라톤 한강 뛰러 갈 때도 할아버지 여러 번 만났어. 그리고 전에는 한번 수영 갈 때도 아침에 할아버지 나와있었다고. 그리고 우리 그때 투표하는 날도 할아버지 만났잖아요. 할아버지 마누라도 보고.

1번 할아버지도 만두집 앞에서 만난 거랑. 이발소 지나갈 때 마주친 것도 몇 번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잇길을 왔다갔다하니까.

(뒤통수는 무슨 상관이 있나?)

동네 바깥에서 동네 주민으로 우리가 인연을 맺고 있다는 그런 건데 내가 빠진 동네 얘기가 아니고 내가 이발소 할아버지를 알고 1번 할아버지도 알고 하니까 동네에서 마주쳤을 때 인사가 되는 거지. 내가 없이 동네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어.

동작문화재단 인터뷰하러 가는 날 특히 신기하게 아침에 할아버지가 집 앞에 바로 나와있는 거야. 근데 그 전에도 몇 번 마주쳤는데 할아버지가 맞나 하고 인사를 안 했다가 그날 처음으로 인사했나. 그래서 어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인사를 받으면서 운동하러 가냐고 그때 하여튼 대화를

좀 나눴어.

(동네 사람이라서 반가워요?)

이제는 반가워.

동작문화재단에서 와서 메이킹필름 찍은 날도 뭔가 진짜 나이 많은 친할아버지한테 데리고 가서 소개시켜 주는 느낌이었다니까.

6. 관람

(소파에 앉아서 관람을 한다고요?)

보고 있으면 진짜 웃겨. 주로 1번 할아버지가 웃기지. 그때 먹갈치 얘기할 때도 열굴 시뻘개졌다니까. 광고에서 왜 아이넷티비에 그런 거 굴비 같은 거 팔고 그러잖아요. 요새는 품목이 먹갈치인가 봐. 먹갈치가 뭔지 아냐고 이발소 할아버지가 바보라고 놀렸더니 1번 할아버지 흥분해서 목소리 커지면서.

TV 도 재미있어. 거기 틀어져 있는 거 할아버지들이 보는 TV를 보는 게 재미있어. TV 보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뭐 송가인이 나오는 거 보고 어려울 때 귀인이 나타난다는데 송가인이 나타났다고 그때 할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거든.

한번은 주현미가 나왔는데 옛날 영상이었어. 그런데 할아버지가 주현미 머리스타일이 저런 거는 자기는 처음 본다면서. 마치 자기가 주현미 전문가인데 저런 건 엄청 새로운 건데 저런 게 있었다는 걸 새로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 또 한번은 칠갑산을 양금석이 불렀나 그런데 뭐 이발소 할아버지가 선곡이 잘못됐다고. 그런데 그때 몸이 불편한 그 할아버지도 그렇고 그 옆에 있던 어떤 다른 손님 할아버지도 그렇고 거의 칠갑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아무도 얘기를 안하고 뭔가 흑 이렇게 먹먹한 느낌으로 다들 보고 있었다고. 나중에 그 할아버지는 울었다고 그랬잖아.

7. 이발

(소파랑 이 의자랑은 또 다른 거예요?)

이발소라는 공간 자체가 머리를 자르는 의자를 제외하고는 다 대기 중인 거잖아요. 소파는 그런 의미고. 어쨌든 이발소의 순기능은 이발이니까.

앉아서 자를 때도 난 관찰을 해. 할아버지가 어떻게 어떻게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를테면 내가 자를 때 수건을 일부러 새것을 꺼내 준다거나. 거기 안에 수건 쌓여져 있는데 일부러 들어가서 할아버지가 새 걸로 바꿔 주셨어 몇 번.

뭔가 할아버지가 나 자를 때 괜한 내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막 신나서 더 자르신 다음에 아 예쁘다 이럴 때도 있거든. 첫 번째 잘랐을 때는 별로 이렇게 친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안 그랬을 수도 있는데 두세 번 즈음 잘랐을 때는 그런 얘기 몇 번 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뭔가 농담처럼 웃으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더 예쁘게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자기가 예쁘게 잘랐다고 그런 얘기도 하셨고. 그리고 한 번 그때 일본 갈 때 였나 내가 머리가 좀 빨리 기는 것 같아서 앞머리가 조금 더 짧아도 되냐고 그랬더니 어 그러면 안된다고 밸런스가 다 깨진다고 이게 딱 적당하다고 그랬어.

여행 갔다 와서 그랬는지 보통 한 달이 안 돼서 가거나 한 달 맞춰서 가는데 더 많이 길어서 간 적이 있어요. 그때도 머리 뒤적뒤적 하면서 이거 이상한데 배신한 거 아니야 이랬다고 할아버지가.

(작가 정신이 있으시지.)

(그래서 난 그냥 가만히 있다 잠 들어.)

앉아라 하면 앉고. 됐다 하면 끝난 거고.

나는 잠 들지는 않고 그냥 할아버지가 앞머리 자르실 때 불편하실까 봐 눈을 감고 있어.

나는 할아버지가 면도칼로 크림 묻혀서 밀어주는 게 되게 기분이 좋아. 그게 미용실 가면 여자들은 안 밀어줘요. 좀 보수적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고리타분한 아줌마일수록 여기를 안 밀고 여자들은 이렇게 모양을 내서 가위로만 다듬어 주거든요. 왜 그러는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는 밀어줘서 되게 기분이 좋아. 왜냐면 이거 안 밀고 가위로만 자르면 되게 금방 자라거든. 면도칼로 미는 게 나는 좋아. 뭔가 나도 똑같이 대우해 주는 그런 느낌.

(진작에 이발을 할 걸 그랬나?)

(또 뭐 특이하거나 신기하게 좋았던 게 더 있어요?)

수건을 바꿔 준다는 것도 의미가 크고. 수건이 제일 처음으로 닿는 거잖아요. 준비 땅. 가운은 그 위에 하는 거고. 면도할 때도 수건은 계속 두르고 있잖아 끝까지. 나도 처음에는 수건을 할아버지가 어떻게 쓰시는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하루는 되게 티나게 안에 들어가서 새 수건을 가지고 나오셨던 게 되게 기억에 남아. 그런데 보통 한 번에 몇 장 가지고 나오셔서 돌아가면서 쓰는 것 같아. 그때 그때 뭐 한 번 쓰고 바로 이렇게 하지는 않아. 솔직히 머리카락 수건에 그렇게 많이 묻지도 않고 그 사람이 아주 냄새나거나 땀을 비 오듯이 흘리는 게 아니면 잠깐 두르고 있는 거니까.

가운을 접는 할아버지만의 방법이 있어. 이렇게 흘릴 것 같은데 안 흘리고 이렇게 그냥 넘긴 다음에 한 번 접고 이렇게 해서 털고 걸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떨어진 거를 1번 할아버지가 비질하는 거거든. 가운을 할아버지 나름의 방식으로 접어.

처음에 갔을 때 내가 약간 큭큭 대면서 웃겼던 게 집계를 안 쓰시고 빗을 두 개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해 놓으시거든. 빗 두 개를 맞물려서 머리에 꽂아 놓는 것도 웃겼었지.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지더라고.

8. 잡동사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거나 뭐 그러지는 않잖아요?)

항상 머리카락들이랑 엉겨있지. 머리카락 털어주는 솜도 구멍 붕붕 뚫리고 오래된 것도 같이 섞여 있어요.

딱 들어가서 앉으면 거기 뭔가 수석이 보이고 주석컵도 있는데 그거 cts 방송국 시작할 때 나눠준 것 같이 거기 써있고. 뭔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조각상 같은 게 물개 모양으로 된 거랑 여자 나체 트로피 같은 거랑 그게 항상 거기 있다고.

거리 면봉이 되게 많아 손톱깎기랑. 왜 많은지는 모르겠어.

(화분은 왜요?)

이발소 안에 나무 화분이 많잖아요. 그 나무 종류가 그 정도면 되게 오래된 나무인거야. 밖에 무화과 나무 정도로 오래됐을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이발소 전체의 색감을 부여하는 게 나무들이라고. 그래서 안에 화초들이 되게 큰 역할을 하는 거지. 화분은 약간 주연 같으면서도 조연으로 분위기 조성하는 느낌으로 계속 남아있는 거지.

그걸 되게 강조하시더라고 할아버지가 여기가 우리 이발이고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도 오픈된 공간이고 물건을 빌려준다는 걸 강조하시더라고. 옆 집 사는 아줌마가 와 가지고 자전거 바람 넣는 거 진짜 오래된 펌프 같은 것도 빌려가셨어. 자세히 보면 여기 화분 밑에 공구 같은 거 잔뜩 쌓여 있거든.